

피팅

2Q26 Re: 미국 LNG 프로젝트발 하반기 실적 기대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성광밴드]

Meritz Research 2026. 8. 18

영업이익 컨센서스 16.1% 하회

2분기 매출액은 641.3억원(YoY +10.4%, QoQ +8.4%), 영업이익은 100.1억원(YoY -7.1%, QoQ +52.3%), 영업이익률은 15.6%(YoY -2.9%p, QoQ +4.5%p)를 기록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6.1% 하회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을 견인한 요소는 미국 데이터센터향 카본재질의 피팅 매출의 증가다. 미국으로 향하는 카본재질의 피팅 수출 물량 중 데이터센터향 물량이 급증하면서 전체 매출 내 카본 비중은 40% 초반대에서 56%까지 증가했다. 카본은 본래 스테인리스 대비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소형 기준 영업이익률이 5% 전후로 추정한다. 그러나 데이터센터향 물량은 중·대형 사이즈 위주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믹스를 희석하는 정도는 낮았다고 추정한다.

하반기 실적은 LNG터미널향 물량이 이어받을 전망

데이터센터향 카본 물량이 향후에도 이번 분기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 데이터센터 승인이 피팅 발주로 이어지려면 EPC 발주와 설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주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또한 단계마다 필요한 물량을 쪼개서 발주하는 분할수주와 분할납품의 형태로 이번 분기처럼 대규모 물량이 특정 시점에 다시 집중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다음 분기부터는 LNG 터미널향 물량이 이를 대체할 전망이다. 작년 하반기 FID(최종투자결정) 완료된 프로젝트는 Woodside Louisiana, Corpus Christi, CP2, Port Aurthr, Riogrande, Commonwealth 등으로, 총 80.9mtpa 규모다. LNG터미널향은 데이터센터향과 달리 비카본(스테인리스·합금강) 비중이 높아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한 ASP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태광]**영업이익 컨센서스 -46.6% 하회**

2분기 매출액은 837.5억원(YoY +15.8%, QoQ +1.8%), 영업이익은 72.1억원(YoY -5.8%, QoQ -22.9%), 영업이익률은 8.6%(YoY -2.0%, QoQ -2.8%)를 기록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46.6% 하회했다.

당기순이익은 689.5억원으로 YoY +416.2%, QoQ +139.2% 증가했는데, 이는 영업외이익 중 금융상품 항목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한 데 따른 영향이다.

종속회사인 파운드리서울, HYTC에서 적자가 발생하며 연결 실적을 떨어뜨렸고, 별도 기준으로도 일회성 비용 약 30억원이 반영됐다. 일회성 비용으로는 미주 매출 30억 중 관세로 인한 비용 약 15억원, 제품 재고 평가 충당금 약 10억원, 그리고 선박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 경비 일부가 포함됐다.

관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객사가 전액 부담하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DDP) 계약에 따라 입항 시점에 일단 회사가 관세를 부담해 비용 처리한 뒤 1~2개월 이후 환수받는 구조다. 15억원 중 절반 가량이 해당 성격의 비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신규 수주분으로 인보이스 단계에서 관세 비용을 어느 정도 전가받은 물량이다.

LNG터미널향 물량도 발주 시작

미국 수출 물량 중에서는 데이터센터향 전적 및 발주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총 300만 달러 발주가 이뤄졌고, 지금도 250만 달러 규모의 발주를 논의 중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라 복합화력발전소향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LNG터미널향 매출이 작년 1분기부터 이미 인식되기 시작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최종투자결정(FID)이 나온 프로젝트 관련 발주 및 이전 프로젝트들의 추가 발주를 기대한다.

[하이록코리아]**영업이익 컨센서스 39.3% 상회**

2분기 매출액은 592.6억원(YoY +9.1%, QoQ +9.4%), 영업이익은 169.9억원(YoY +3.4%, QoQ +8.3%), 영업이익률은 28.7%(YoY -1.6%, QoQ -0.3%)를 기록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39.3% 상회했다. 회사에 따르면 연초 제시했던 연간 매출액 가이드스 2,000억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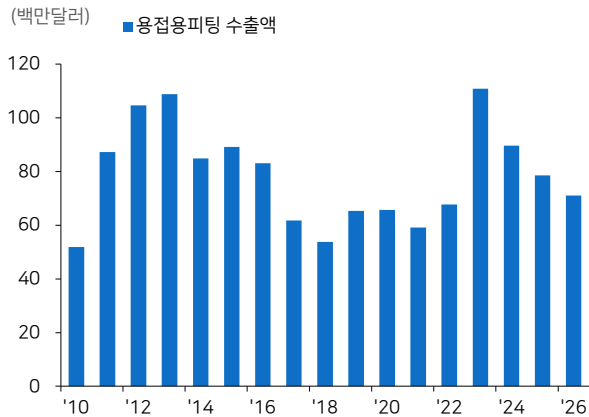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부문에서는 삼성중공업 FLNG 등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와 LNG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납품 일정에 따라 매출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존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LNG프로젝트는 주로 중동과 카타르향으로 진행하며, 전쟁 영향으로 일부 지연되고 있다. 다만 입찰 등 지연됐던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터미널 피격 이후의 전쟁 재건 수요는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 매출은 300억원대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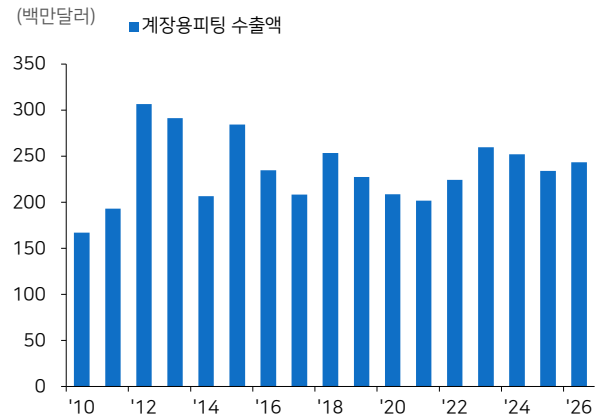
반도체향 매출은 지난해 약 200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300억원 이상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부문의 수익성은 회사 평균 대비 낮은 편이지만, 회사가 목표하는 영업이익률 25~30%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림1 용접용 피팅 반기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계장용 피팅 반기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올해 상반기까지 FID 완료된 주요 LNG 프로젝트 현황

국가	프로젝트명	기업	Export Capacity (mtpa)	프로젝트 규모 (십억달러)	상태	FID(예상)일	상업운전 개시	필요 선박 척수 (175K cbm)
미국	Corpus Christi Mid-scale Trains 8	Cheniere Energy	1.6	-	FID 완료 (U/C)	2025년 6월	2028	3
미국	Corpus Christi Mid-scale Trains 9	Cheniere Energy	1.6	-	FID 완료 (U/C)	2025년 6월	2029	3
미국	CP2 LNG Phase 1	Venture Global	14.4	33.0	FID 완료 (U/C)	2025년 7월	2027	15
미국	Port Arthur LNG Phase 2 Train 3	Sempra Infrastructure Partners	6.5	14.0	FID 완료 (U/C)	2025년 9월	2030	12
미국	Port Arthur LNG Phase 2 Train 4	Sempra Infrastructure Partners	6.5		FID 완료 (U/C)	2025년 9월	2031	12
미국	Rio Grande LNG Phase 2 Train 4	NextDecade	6.0	6.7	FID 완료 (U/C)	2025년 9월	2030	17
미국	Rio Grande LNG Phase 2 Train 5	NextDecade	6.0	6.7	FID 완료 (U/C)	2025년 10월	2031	17
미국	CP2 LNG Phase 2	Venture Global	7.8	8.6	FID 완료 (U/C)	2026년 3월	2028	12
미국	Commonwealth LNG	Carturus	9.5	13.0	FID 완료 (U/C)	2026년 5월	2030	20
미국	Delfin FLNG 1	Delfin Midstream	4.4	2.9	FID 완료 (U/C)	2026년 6월	2029	9

자료: Clarksons, 언론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